

럭키금성 '남녀고용평등' 소홀

동국제강·고합 전혀없어...오양수산 여성비율 최고

94.6.14

지난해말 현재 30대 그룹 가운데 남녀고용평등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곳은 럭키금성이며, 전혀 법 위반을 하지 않은 그룹은 동국제강·한양·고합·우성건설 등 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겨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지난해 말까지 시정하지 않은 4백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.

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전체 위

반건수 9백19건 가운데 30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21.6%나 됐다. 부문별 위반사항은 육아휴직이 전체의 25.4%, 배치승진이 25.2%, 임금이 23.3% 등으로 이들 3개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.

30대 그룹이 가장 많이 위반한 분야는 임금으로 30대 그룹 전체 위반건수의 42.2%나 됐다.

한편 지난해 상장제조업 가운데 여성사원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오양수산으로 전체 사원의 77%가 여성이었다. 신현만 기자